

다문화가족 자녀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환경

Mother's Personal Variables in Multicultural Family on Home Environment

오성숙*, 이은경**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동신대학교**

Seong-Sook Oh(ohss1054@hanmail.net)*, Eun-Kyoung Lee(eklee129@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6세 다문화가족 자녀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라 가정에서 자녀에게 제시하는 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놀이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에서는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에서는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자녀 | 어머니 개인변인 | 가정환경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anguage receptiv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ing to living areas. The subjects were 132 mother with children for living multicultural families 3 to 6 years ol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s of home environment on nationality,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emotional atmosphere, experience's variety, and play data in statistically. Second, the differences of home environment on age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permission, independent's upbringing emotional atmosphere, experience's variety and physical environment in statistically. Third, the differences of home environment on educational background,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predictable environments, developmental stimulation, quality of language environments, permission, independent's upbringing emotional atmosphere, experience's variety, physical environment and play data in statistically. Fourth, the differences of home environment on communication method in home, all variables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tistically as communication(general korean) they use in home. Fifth, the differences of home environment on occupation existence, all variables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atistically.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y | Mother Personal Variable | Home Environment |

1. 서론

현재는 세계화의 시대로 한 사회에 여러 인종과 민족이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이며, 각 민족의 독특한 문화가 서로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유사하게 한국 사회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백만을 넘어서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언어 문제와 더불어 육아지원기관 및 학교에서의 적응력, 또래와의 관계,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민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열린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8][9][23]. 그러나 아직 연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해 등 기초적인 수준이고,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전생애적 조망에 근거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하다[22].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대부분이 낮은 경제력으로 부모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언어모델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녀의 언어습득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11]. 또한, 설동훈(2006)은 한국 거주기간이 대부분 6년 이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 중 78%가 한국어 학습을 한 적이 없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보니 자녀에게 주로 제한된 어법으로 잘못된 문법과 형태의 언어 환경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 이주여성들은 본인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의

상당수는 언어문제, 학습부진, 자신감 부족, 편견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3][14][19]. 안은미(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한국어 습득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일본 3.75점, 필리핀 3.50점, 기타 3.00점으로 국적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12], 김미옥(2003)의 연구에서는 어순이 같은 한자권에 속해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고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일본권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보다 한국어를 빨리 습득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언어체계와 문화권에 있는 국적의 어머니가 한국어 습득이 용이할 것이고, 이것이 자녀의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언어 및 인지발달과의 상관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정서적, 물리적인 환경을 더 많이 제공한다고 하였다[15]. Bernstein(1961)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보다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을 사용하며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되고 자녀의 주제적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개인변인이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정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주양육자이며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의존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자녀가 주위 세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에 어머니는 보호자의 역할,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 상호작용 발달 촉진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자극과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한다[5][16].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어머니는 단일문화가족 어머니와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는 출신국가, 모국어, 학력,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회경제적 위치 등과 같은 개인변인은 어머니의 적응능력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제공하게 되는 다양한 가정환경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정환경은 자녀의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4][18],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이들

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환경의 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정형성 프로그램 개발, 개별화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6세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어머니가 결혼이주인 여성인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전체 132명으로 연구대상별 구체적인 분포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구체적인 분포

변인	집단분류 기준	인원	비율(%)
국적	중국	47	35.6
	필리핀	37	28.0
	베트남	31	23.5
	일본	17	12.9
연령	30세미만	22	16.7
	30~34세	66	50.0
	35세이상	44	33.3
학력	중졸이하	25	18.9
	고졸	56	42.5
	대졸이상	51	38.6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	한국어	62	47.0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	49	37.1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	21	15.9
직업유무	전업주부	95	72.0
	취업주부	37	28.0

2. 연구 도구

2.1 다문화가족 어머니 개인변인

어머니 개인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행연구 [3][24]를 토대로 예비질문지를 제작하였고, 다문화가족 어머니 10명과 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국적, 연령, 학력,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 직업유무의 다섯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2.2 가정환경 검사 도구

가정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은혜, 장영애(1982)의 가정환경자극 검사(HOME)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내용과 문항 수는 [표 2]와 같고, 점수는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표 2. 가정환경 검사의 하위변인 및 문항 수

하위변인	내 용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계수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조직	일정한 소수 성인과의 빈번한 접촉	6	1~6	.82
발달을 돕는 자극	자극과 반응이 풍부한 사회적 학습환경 제공	13	20, 22, 24, 25, 49, 52~57, 101, 102	.92
언어적 환경의 질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상호작용	11	8, 18, 19, 23, 50, 51, 96, 103, 104~106	.87
허용성	탐구적인 시도에 불필요한 제지가 적은 것	14	11, 46~47, 59, 60, 90~95, 107~109	.79
독립성의 육성	스스로 행동을 고치는데 유용한 자료나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	17	9, 10, 12~17, 44 58, 63, 70, 85~89	.76
정서적 분위기	사람과 긍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계	17	48, 82~84, 110~122	.85
경험의 다양성	다양한 문화적 경험제공	19	61, 62, 64~69, 71~81	.88
물리적 환경	다양한 감각경험을 포함하는 공간과 비품	18	43, 97, 98~100, 123~135	.77
놀이 자료	일정한 종류의 놀이 자료	17	26~42	.93
계		132		.96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6일부터 2011년 5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시교육청 및 시청 다문화 관련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82개 유아교육기관장에게 유아에 대한 검사 허가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와 조사는 연구도구와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유아교육 전공 학생이 각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접, 간단한 설문지, 비공식적 대화면접, 가정환경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가정환경 질문지는 어머니 1인당 4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이 매우 서툴러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기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계수로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국적, 연령, 학력, 남편의 학력,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6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대상의 개인변인은 국적, 연령, 학력,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주언어 형식, 직업유무로 분류하였으며 각 변인에 따른 가정환경차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1.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환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분석

하위 변인	국적	N	M	SD	F	사후검증
안정된 환경	중국	47	4.06	1.29	.553	
	필리핀	37	4.37	1.16		
	베트남	31	4.32	1.10		
	일본	17	4.23	1.14		
발달을 돕는 자극	중국	47	9.19	4.41	.479	
	필리핀	37	10.21	3.87		
	베트남	31	9.35	4.36		
	일본	17	9.52	2.47		
언어적 환경의 질	중국	47	7.80	2.20	1.339	
	필리핀	37	8.16	2.11		
	베트남	31	8.87	2.68		
	일본	17	8.17	2.18		
허용성	중국	47	7.23	2.22	.738	
	필리핀	37	8.02	2.47		
	베트남	31	7.87	3.37		
	일본	17	7.58	2.15		
독립성의 육성	중국	47	9.93	4.00	1.258	
	필리핀	37	11.29	3.85		
	베트남	31	11.45	4.39		
	일본	17	11.47	4.54		
정서적 분위기	중국	47	8.36	3.15	2.108*	c, a)b)d
	필리핀	37	9.45	3.25		
	베트남	31	9.32	3.13		
	일본	17	7.58	1.76		
경험의 다양성	중국	47	8.29	3.35	3.172*	c, a)d, b
	필리핀	37	10.13	3.01		
	베트남	31	10.12	3.07		
	일본	17	9.35	2.78		
물리적 환경	중국	47	8.82	2.69	.697	
	필리핀	37	9.18	2.56		
	베트남	31	9.38	3.04		
	일본	17	8.29	2.71		
놀이 자료	중국	47	9.38	4.31	2.340*	a, c, d)b
	필리핀	37	11.55	4.15		
	베트남	31	11.61	4.81		
	일본	17	10.35	4.18		

* $p < .05$ a=베트남 b=중국 c=필리핀 d=일본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놀이 자료에서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서적 분위기에서는 국적이 필리핀(M=9.45), 베트남(M=9.32), 중국(M=8.36), 일본(M=7.58)순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필리핀 국적과 중국 국적 간, 필리핀 국적과 일본 국적 간, 베트남 국적과 중국 국적 간, 베트남 국적과 일본 국적 간, 중국 국적과 일본 국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국적이 필리핀(M=10.13), 베트남(M=10.12), 일본(M=9.35), 중국(M=8.29)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필리핀 국적과 중국 국적 간, 필리핀 국적과 일본 국적 간, 베트남 국적과 중국 국적 간, 베트남 국적과 일본 국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자료에서는 국적이 베트남(M=11.61), 필리핀(M=11.55), 일본(M=10.35), 중국(M=9.38)순으로 놀이 자료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필리핀 국적과 중국 국적 간, 베트남 국적과 중국 국적 간, 일본 국적과 중국 국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국적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결혼이주민 여성이 대부분 동남아를 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2.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개인변인 중 연령에 따라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집단을 30세미만, 30~34세, 35세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처리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표 4.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분석

하위 변인	연령집단	N	M	SD	F	사후검증
안정된 환경	30세미만	22	4.63	1.04	1.621	
	30~34세	66	4.19	1.09		
	35세이상	44	4.09	1.36		
발달을 돕는 자극	30세미만	22	10.59	3.33	.911	
	30~34세	66	9.45	4.05		
	35세이상	44	9.20	4.31		
언어적 환경의 질	30세미만	22	8.95	2.12	1.410	
	30~34세	66	8.07	2.29		
	35세이상	44	8.02	2.38		
허용성	30세미만	22	8.81	2.78	3.025*	a)c, b
	30~34세	66	7.27	2.67		
	35세이상	44	7.63	2.22		
독립성의 육성	30세미만	22	12.63	3.07	2.455*	a)b, c
	30~34세	66	10.54	4.31		
	35세이상	44	10.47	4.18		
정서적 분위기	30세미만	22	10.00	2.26	2.932*	a)b, c
	30~34세	66	8.86	3.42		
	35세이상	44	8.09	2.71		
경험의 다양성	30세미만	22	11.00	2.82	3.993*	a)b, c
	30~34세	65	9.27	3.26		
	35세이상	44	8.70	3.08		
물리적 환경	30세미만	22	10.50	2.48	4.200*	a)c, b
	30~34세	66	8.66	2.75		
	35세이상	44	8.72	2.64		
놀이 자료	30세미만	22	12.27	3.85	1.812	
	30~34세	65	10.29	4.41		
	35세이상	44	10.31	4.69		

*p < .05 a=30세미만 b=30~34세 c=35세이상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허용성에서는 연령이 30세미만(M=9.45), 35세이상(M=9.32), 30~34세(M=8.36)순으로 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0~34세간, 30세미만과 35세이상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의 육성에서는 연령이 30세미만(M=12.63), 30~34세(M=10.54), 35세이상(M=10.47)순으로 독립성의 육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5세이상간, 30세미만과 30~34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분위

기에서는 연령이 30세미만(M=10.00), 30~34세(M=8.86), 35세이상(M=8.09)순으로 정서적 분위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5세이상간, 30세미만과 30~34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연령이 30세미만(M=11.00), 30~34세(M=9.27), 35세이상(M=8.70)순으로 경험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5세이상간, 30세미만과 30~34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에서는 연령이 30세미만(M=10.50), 35세이상(M=8.72), 30~34세(M=8.66)순으로 물리적 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30세미만과 30~34세간, 30세미만과 35세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놀이 자료 등에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개인변인 중 학력에 따라 가정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력집단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처리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분석

하위변인	학 력	N	M	SD	F	사후검증
안정된 환경	중졸이하	25	3.92	1.03	3.169*	c)b, a
	고졸	56	4.08	1.23		
	대졸이상	51	4.54	1.15		
발달을 돕는 자극	중졸이하	25	8.28	4.13	3.347*	c)b, a
	고졸	56	9.17	4.19		
	대졸이상	51	10.60	3.60		
언어적 환경의 질	중졸이하	25	7.36	2.19	4.593*	c)b, a
	고졸	56	7.94	2.38		
	대졸이상	51	8.90	2.10		

허용성	중졸이하	25	7.08	2.84	1.886	
	고졸	56	7.42	2.64		
	대졸이상	51	8.17	2.35		
독립성의 육성	중졸이하	25	9.52	3.99	3.663*	c)b, a
	고졸	56	10.44	4.26		
	대졸이상	51	12.00	3.85		
정서적 분위기	중졸이하	25	7.56	3.12	3.542*	c)b)a
	고졸	56	8.69	2.91		
	대졸이상	51	9.50	3.09		
경험의 다양성	중졸이하	25	8.32	3.61	2.701*	c)b, a
	고졸	56	9.21	3.33		
	대졸이상	50	10.08	2.70		
물리적 환경	중졸이하	25	8.32	2.64	2.466*	c)b, a
	고졸	56	8.71	2.67		
	대졸이상	51	9.62	2.77		
놀이 자료	중졸이하	25	9.08	4.29	3.007*	c)b)a
	고졸	56	10.41	4.61		
	대졸이상	50	11.66	4.16		

*p < .05 a=대졸이상 b=고졸 c=중졸이하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정된 환경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4.54), 고졸(M=4.08), 중졸이하(M=3.92)순으로 안정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을 돕는 자극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10.60), 고졸(M=9.17), 중졸이하(M=8.28)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환경의 질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8.90), 고졸(M=7.94), 중졸이하(M=7.36)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의 육성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12.00), 고졸(M=10.44), 중졸이하(M=9.52)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분위

기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9.50), 고졸(M=8.69), 중졸이하(M=7.56)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 고졸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10.08), 고졸(M=9.21), 중졸이하(M=8.32)순으로 경험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9.62), 고졸(M=8.71), 중졸이하(M=8.32)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놀이 자료에서는 학력이 대졸이상(M=11.66), 고졸(M=10.41), 중졸이하(M=9.08)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과 고졸 간, 대졸이상과 중졸이하 간, 고졸과 중졸이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용성에서는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다고 한 김영옥 외(2008), 정환순(2001)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김정령(2012)은 어머니의 학력을 고졸이상, 고졸 미만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환경에 대한 어머니 변인 못지않게 아버지 변인 또한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의 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으며 가정환경 수준과 아동의 발달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이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다문화가족의 어머니 개인변인 중 가정 내 의사소통 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국어,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결과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집단 간 구체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방식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분석

하위 변인	사용하는 언어	N	M	SD	F	사후검증
안정된 환경	한국어	62	4.71	1.25	10.332*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4.47	.816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3.77	1.24		
발달을 돕는 자극	한국어	62	11.20	3.96	10.215*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10.28	3.16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8.01	4.48		
언어적 환경의 질	한국어	62	9.38	2.12	16.872*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9.10	2.04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7.09	1.96		
허용성	한국어	62	8.42	2.62	3.225*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8.06	2.38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7.06	2.68		
독립성의 육성	한국어	62	12.51	4.08	11.218*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12.00	3.475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9.19	3.97		
정서적 분위기	한국어	62	9.76	3.07	6.781*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9.65	2.68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7.79	3.17		
경험의 다양성	한국어	61	10.44	3.30	6.500*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9.80	2.64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8.36	3.32		
물리적 환경	한국어	62	9.83	2.53	7.366*	a, b)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9.76	2.40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8.06	3.26		

놀이 자료	한국어	61	12.66	4.25	12.988 ^a	a, b, c
	주로 한국어 +부분적 모국어	49	12.18	3.69		
	부분적 한국어 +주로 모국어	21	8.68	4.48		

*p < .05

a=한국어 b=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 c=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의 모든 변인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언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정된 환경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4.71),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4.47),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3.77)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경(2006)은 한국어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사용능력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가정에서 환경적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것과 맥락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발달을 돕는 자극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11.20),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10.28),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8.01)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환경의 질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9.38),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9.10),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7.09)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성은 주언어가 한국어(M=8.42),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8.06),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7.06)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의 육성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12.51),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12.00),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9.19)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분위기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9.76),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9.65),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7.79)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의 다양성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10.44),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9.80),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8.36)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주언어가 한국어(M=9.38),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9.76),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8.06)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자료는 주언어가 한국어(M=12.66),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M=12.18),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M=8.68)순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과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를 사용하는 가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적극적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고, 이는 아동의 발달과 가정 내 어머니의 역할과 의사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상호작용능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정 내 의사소통 수단이 주로 한국어인 경우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2][13][20].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5.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

다문화가족 어머니 개인변인 중 직업에 따라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대상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결과는 아래

의 [표 7]과 같다.

표 7.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분석

하위 변인	직업	N	M	SD	t
안정된 환경	전업주부	95	4.26	1.18	.436
	취업주부	37	4.16	1.21	
발달을 돕는 자극	전업주부	95	9.55	4.05	-.012
	취업주부	37	9.56	4.03	
언어적 환경의 질	전업주부	95	8.25	2.36	.382
	취업주부	37	8.08	2.17	
허용성	전업주부	95	7.61	2.65	-.290
	취업주부	37	7.75	2.45	
독립성의 육성	전업주부	95	11.10	4.15	1.042
	취업주부	37	10.27	4.09	
정서적 분위기	전업주부	95	8.87	2.98	.466
	취업주부	37	8.59	3.35	
경험의 다양성	전업주부	95	9.46	3.12	.515
	취업주부	36	9.13	3.45	
물리적 환경	전업주부	95	9.03	2.80	.262
	취업주부	37	8.89	2.60	
놀이 자료	전업주부	95	10.86	4.45	.958
	취업주부	36	10.02	4.44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 모두에서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와 가정환경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업주부가 자녀와 생활하는 양적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의 질적인 면을 제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직업유무, 사회경제적 여건, 학력수준에 대한 모든 경우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개인변인 간 상관성을 고려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세에서 6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머니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가정환경을 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개인변인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놀이 자료가 국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분위기는 국적이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순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의 다양성은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놀이 자료에서는 국적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중국 순으로 놀이 자료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필리핀 국적인 경우, 정서적 분위기와 경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한 기간이 다른 국적의 여성들보다 비교적 길고, 그 수가 많아 이들 서로 간에 커뮤니티가 깊게 형성되어 있어 서로 간에 정보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연령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이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을 30세 미만, 30~34세, 35세이상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30세미만인 집단의 경우 모든 하위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35세이상인 집단의 경우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셋째, 학력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모든 하위변인에서 획득점수가 대졸이상 > 고졸 > 중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에게 제시하는 자극의 질이나 양이

풍부하다는 선행연구[26]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와 그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정 내 의사소통방법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의 모든 변인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언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주언어 양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획득점수가 한국어 > 주로 한국어+부분적 모국어 > 부분적 한국어+주로 모국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하위변인 모두에서 획득점수가 높다는 것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좋을수록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양이 많다고 여겨지며 이는 자녀의 한국어학습 및 한국어 사용능력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족 어머니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안정된 환경, 발달을 돕는 자극, 언어적 환경의 질, 허용성, 독립성의 육성, 정서적 분위기, 경험의 다양성, 물리적 환경, 놀이 자료 모두에서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질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직업의 질에 따라서 가정환경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개인변인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결혼이주여성 국가별 특성애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촉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전생애적 조망에서 볼 때 자녀의 연령에 맞는 발달시기를 중심으로 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개인변인을 고려한 가정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다문화 가족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령, “다문화 가족 아동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어 교육*, 제23권, 제2호, pp.1-37, 2012.
- [2] 김미옥,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교육*, 제14호, 제3권, pp.26-43, 2003.
- [3]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143-164, 2009.
- [4] 김혜경, 조성연,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HOME)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제7권, 제2호, pp.3-16, 2002.
- [5] 노미향,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 박현선,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 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365-388, 2012.
- [7]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2005.
- [8]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보건복지부 주관 과제별 추진실적 및 계획”, *국정감사요구자료*, 2006.
- [9]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브리핑 자료*, 2008.
- [10] 서현, 이승은,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5-47, 2007.
- [11] 설동훈,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 다문화주의 모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비판 사회학대회*, 2005.
- [12] 안은미,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3] 오성배,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5.
- [14] 오성배, “국제결혼가정의 교육환경과 문제, 교육비평”, 제22권, pp.86-213, 2007.
- [15] 오성숙,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2호, pp.522-531, 2013.
- [16] 이경희, *아동발달과 부모교육*, 서울: 교문사, 2000.
- [17] 이은혜, 장영애,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 pp.49-63, 1982.
- [18] 장영애,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4호, pp.173-188, 1995.
- [19] 정은희, “농촌 지역 국제 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3호, pp.33-52, 2004.
- [20] 정현경,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 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21] 정환순,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인간교육연구*, 제8권, 제2호, pp.31-76, 2001.
- [22] 조영달,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fy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 용역 과제 최종보고서*,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2006.
- [23] 중앙건강지원센터, *2008년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매뉴얼*, 2009.
- [24] 홍달아기, 채옥희,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실태와 갈등”, *한국재활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729-741, 2006.
- [25] B. A. Bernstein, *Social class and linguistic*

development: a theory of social learning. In A. H. Halsey, J. Floud, & C. A. Anderson (Eds.),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61.

[26] B. Hart and T. R. Risley, *American parenting of language-learning children : persisting differences in family-child interactions observed in natural home environm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5.

저 자 소 개

오 성 숙(Seong-Sook Oh)

정회원



- 2009년 8월 : 대구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관심분야 > : 유아교육,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자녀교육

이 은 경(Eun-Kyoung Lee)

정회원



- 2007년 8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이학박사)
 - 현재 :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 말언어장애, 인지-의사소통장애, 다문화화 의사소통